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낭트
파견대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1학기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덴시아는 낭트의 중심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우리 학교 파견 학생이라면 아틀란틱 캠퍼스에서 수업을 전부 듣게 될거 같습니다. 학교 건물은 깔끔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2학기 수업	<p>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오덴시아 자체 프로그램(엑셀)을 돌려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윤을 얻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없습니다만 종강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기 때문에 팀프로젝트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p> <p>유러피안 비즈니스- 오덴시아를 검색하면 나오는 악명 높은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인데 인종차별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많습니다. 거의 매주 팀과 함께 하는 스터디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시험은 기말고사 한 번만 치렀고 스몰 프로젝트와 빅프로젝트로 나뉘는 발표 두개가 있습니다.</p> <p>스트레티직 매니지먼트-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수업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코칭세션과 일반적인 수업시간으로 나뉩니다. 3번의 온라인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에서 15점 이상을 획득하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와 프로젝트 발표가 끝나면 종강하게 됩니다.</p> <p>디지털 마케팅&소셜네트워크-가장 수월했지만 자잘하게 할게 많았던 수업입니다. 기말고사와 발표로 수업이 이뤄지는데 발표를 하기 위해 학기 초에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교수님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토대로</p>

	<p>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sns분석은 하나하나 입력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오덴시아에서 유일하게 부담이 없는 수업이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오리엔테이션 중 은행, 여행프로그램 등등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거주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p> <p>교환학생 담당부서에서 학기 중 상담을 1회 실시 합니다. 학교 수업은 어떤지 거주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는데 그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메일도 빠르게 답장주십니다.</p> <p>학교 IC팀에서 여러가지 파티를 자주 열어줍니다. 옥토버페스트, 할로윈,크루즈 파티 등등</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9~12월까지의 경험으로 따져보면 11월 초까지는 날씨가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해도 늦게 지고 반팔+가디건 조합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해가 빨리 지고 흐린 날이 반복 됩니다. 물론 비도 자주 옵니다. 한국이랑은 다르게 으실으실한 추위가 반복 되니 감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낭트에서 눈은 첫눈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p>
안전	<p>제가 거주하던 22년 하반기엔 낭트에 뉴스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밤 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인종차별도 어린아이들이 니하오 하고 지나간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Bourgeonniere라는 크루즈에 운이 좋게 붙었습니다. 크루즈에 붙는 기준은 모르지만 일단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인 1실이고 주방과 화장실,냉장고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공용주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아주 좁지만 생활 하다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트램역과 큰 마트가 있고 빵집, 케밥집이 있고 학교는 트램을 타면 3~5분이면 갑니다.(정류장 2개) 지망한적 없던 크루즈 였지만 위치 덕에 정말 만족하며 생활 했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 아무래도 프랑스는 외식이 비싸고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주로 해먹었습니다. 학교 식당은 카드가 있으면 5유로 짜리 식사를 3유로에 먹을 수 있습니다만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p>
<p>교통</p>	<p>크루즈 바로 앞 트램역기준으로(Bourgeonniere) 오덴시아- 3분 시내(commerce)-20~25분 ikea-트램&버스 환승으로 약 55분 낭트역-트램 환승 약 30분 공항-트램&버스 환승 약 1시간</p> <p>파리에 갈 때는 낭트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떼제베 맥스가 아닌 카트 준을 사용했습니다. 파리에 자주 가실 분은 맥스를 끓는게 이득이지만 저는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카트 준을 잘 사용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220 만원	
Fees	비자를 위한 프랑스 문화원(325000)+ 프랑스 대사관 (약 6만원)	
보험료	인슈플러스 골드 312820원	
숙소	월세 346유로X 4개월 보증금 350유로	
식비	최대 50	식비+옷값 등등
교통비	약 10유로	트램은 검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검표원 딱 한번 만남) 대부분 그냥 탑승하고 버스는 티켓을 보여줘야 하지만 주말엔 낭트 대중교통이 무료여서 교통비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책값	X	
기타1	200만원	초기 정착비용(주방용품+이불 등)
기타2	매달 14.9유로	데이터요금
기타3	150~200	여행
합계	약 9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실외보다 실내가 훨씬 춥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몸이 덜덜 떨릴 정도이기 때문에 전기 장판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생리대에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이 쓰시던거 들고 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위와 손가락,젓가락도 필수로 챙겨주세요! 음식은 많이 들고 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국물큐브, 참기름, 볶음 고추장 약간, 다시팩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은 거의 아예 쓰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환전은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미국과 유럽 교환학생 중 여러 고민 끝에 유럽을 선택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학연수나 어떠한 기회로든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유럽에 살고 있는 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휴학시기에 터진 코로나로 인해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기회에 유럽에 살아도 보고 여행도 해보자 싶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는 다짐대로 학기 중에 파리,근교 해변, 가을 방학에 니스,스위스,베니스를 다녀오고 종강 후엔 영국, 바르셀로나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도 살다보니 눈치껏 어떻게든 되기 때문에 만약 오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성취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낭트



팀프로젝트 중



학교 IC team 옥토버페스트



수업 중